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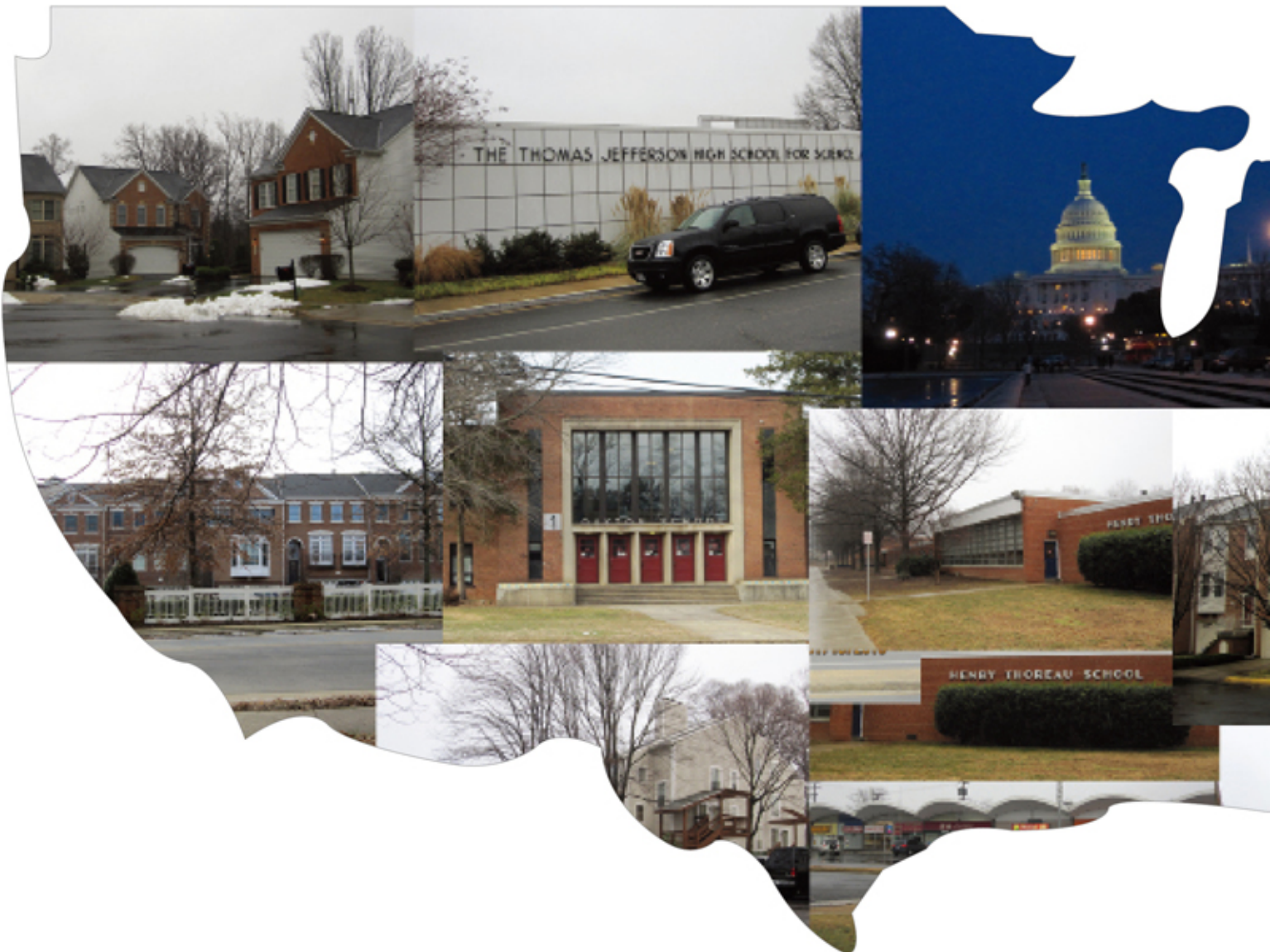
STUDY ABROAD



MET
SCHOOL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미국 공립학교 조기유학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낼 경우, 학비만 해도 연간 1200만 원~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보다 저렴하게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 학비 없는 미국 공립학교 조기유학 가이드를 소개한다. 글 | 임준희 (이싱크유학원 대표)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많지 않고 생활물가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을 원하지만 사실상 '그런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늘어나는 지역이야말로 생활물가와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미국 사립학교로 유학 보낼 경우, 학교입학에 필요한 영어성적, 복잡한 지원일정, 연 \$10,000-\$30,000의 높은 학비 등 여러 조건들이 따른다. 하지만 미국 공립학교는 영어 한마디 모르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개강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학비가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립학교로 자녀 유학을 보내고 있다.

다만 공립학교는 해당 지역(카운티 County)의 거주민 중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Tax Payer)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입학이 허용되기에 국내에서 자녀만 미국공립학교에 학비 없는 유학을 보낼 수는 없다. 학비 없는 미국 공립학교 조기유학을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유학비자(F1)를 받고 자녀의 동반비자(F2)를 신청해야 한다.

지역 및 학교 선정하기 ■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지인을 통해 '학비 없는 조기유학' 방법을 안내 받고, 지인이 있는 지역으로 떠나곤 한다. 낯선 땅에서 지인이 옆에 있는 것만큼 좋은 선택은 없겠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또다시 좋은 학군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서라도 잦은 지역 변경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인이 있는 지역보다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내에서 미리 선택한 후 가는 것이 좋다.

지역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US News에서 발표하는 공립학교 랭킹(<http://www.usnews.com/sections/rankings/index.html>)을 참조하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몇 년째 랭킹 1위를 유지하는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영향 때문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LA 지역 다음으로 뉴욕지역을 제치고 워싱턴DC 주변지역이 한국인 밀집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버지니아주 북동부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 내 평균소득 1위 카운티이며, 좋은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워싱턴D.C와 근접해 있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다. 미국 내 8학군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한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많지 않고 생활물가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을 원하지만 사실상 '그런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늘어나는 지역이야말로 생활물가와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한국인 없는 영어환경에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 않은 중부지역의 카운티에는 열악한 학교시설, 과외활동의 부재, 외국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ESL/ESOL/ELD)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 초기 정착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F1/F2 비자 받기 ■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하면 미국 학생비자(F1)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학생비자(F1)를 받으려면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들 말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가 필수인데 아무리 서류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응답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거나 반대로 서류는 미비하지만 영사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비자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시나리오에 맞는 학원/학교선택 ■ 미국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과 논리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논리적인 시나리오를 갖추었다면 이에 맞는 학원·학교를 지원하여 입학허가서(i-20)를 준비하고, 비자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업시간(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08:00~14:00이 일반적임) 때문에 오전 반만 수업하는 학원에 등록한다.

간결하면서 완벽한 비자서류 구비 ■ 비자서류 구비를 위해 한번은 영문잔고증명서를 7통 넘게 준비한 어머니도 있었다. 처음에는 은행과 예치된 비용이 같았기에 한 계좌에서 여러 장을 준비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계좌가 각기 달랐다. “최대한 자신의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단지 계좌가 많다고 해서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합친 후 남편 계좌와 본인의 계좌를 각기 다른 은행으로 하여 두 장의 영문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학생비자(F1) 구비서류는 전자여행허가(ESTA)가 허용된 이후로 매우 간단해졌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과거 구비서류를 참조하지 말고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정리한 ‘한국 국적 비자신청자의 구비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날짜&시간 선택 ■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학생비자(F1) 취득은 영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터뷰 날짜는 미국 내 상황을 잘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크게 나왔다면 인터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좋다. 반대로 미국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는 경우라면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 머무는 중에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 L.A와 Atlanta에 있는 한국인 어학원들이 미국 학생비자(F1) 관리법을 어겨 크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가급적 학생비자(F1) 인터뷰는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공립학교 입학 시
필요한 구비서류**

- ① 여권
- ② 인역접종기록 : 영문으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 ③ 거주지증명서 : 아파트 렌트 계약서
- ④ 성적기록부 :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하다.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기 ■ 사립학교는 개강일정에 맞춰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다.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려면 해당 지역(카운티 County)의 교육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신청하는 당일 해당 학생에게 약 1시간 내외로 시험을 보게 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에 따라 자녀의 영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OL, ELD 등의 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집 주소 근처의 공립학교를 배정 받으며, 제출한 성적기록부, 나이에 맞게 학년을 배정받는다.

집 구하기 ■ 지역이 결정되고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주거방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콘도, 타운하우스, 하우스가 있는데 유학을 가는 가족 수, 렌트 비용, 집 관리 능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구분	아파트	타운하우스	하우스
특성	일반회사가 운영하며, 대부분 3-4층의 저층에 1-2 Bed Ro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형태의 밀집형 주거형태로 1-2, 또는 1-3층까지 모두 사용, 2-3 Bed Room을 갖추고 있다.	독립된 주택공간이며 2층 또는 단층구조로 지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월 렌트 비용 (페어팩스카운티 기준)	\$1,200-\$1,400	\$1,500-\$1,800	\$1,800-\$2,500
장점	렌트 비용이 저렴하며, 중앙난방식이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아파트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완벽한 사생활이 보장된다.
단점	공동세탁기를 사용하기도 하며,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파트보다 유틸리티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며, 다운타운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틸리티 비용이 높으며, 집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파트 검색 시
도움이 되는 사이트**

- www.apartmentguide.com
- www.apartments.com
- www.forrent.com
- www.move.com
- www.rent.com

미국의 아파트는 한 회사에서 관리하고 렌트를 한다. 콘도(Condominium)는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세를 놓는다. 외형적으로는 아파트와 콘도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립학교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간혹 학비가 없는 미국공립학교 조기 유학을 생각하고 상담을 받는 고객들 중에는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현지에서 생활하는 실제 유학생들의 월 유학비를 공개한다.

〈유학생들의 월 생활비〉

도시명	서부 얼바인	동부 페어팩스	동부 뉴욕 플러싱
가족수	어머니 + 초등학생 2명	어머니 + 초등학생 2명	어머니 + 초등학생 2명
주택 렌트비용	\$1,400 / 2Bed Apartment	\$1,500 / 2Bed Condominium	\$1,500 / 2Bed Apartment
전기/가스 비용	\$130	\$150	\$200
차량보험비	\$120	\$100	\$120
차량유류비	\$150	\$150	\$120
식료품비	\$350	\$400	\$300
어머니 학원비	\$570	\$930	\$1,028
자녀 학원 비용	\$400 / 1인	\$400 / 1인	\$900 / 2인
TV케이블/통신비	\$180	\$200	\$200
레저/기타비용	\$700	\$800	\$1,000
합계비용	\$4,000	\$4,730	\$5,368

비용 절감을 위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 같이 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렌트 비용, 차량 유류 비용은 물론, 자녀들 픽업이나 야외활동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